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경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저금리 시대 막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 Bloomberg: 연준 아직 자축하기엔 이르다… 금리와 인플레 계속 상승

[미국 금융]
- WSJ: 은행들, “부유한 모기지 대출자들 이젠 별로”

[뉴욕시]
- Bloomberg: 뉴욕시 교통 혼잡세 기관, 통행료 면제 대상 놓고 골머리

[운송/자동차]
- CNBC: 주요 해운 항로 어려움 겪어… 물부족 현상 탓
- WSJ: 자동차 구매 대출 더 부담될 수 있어

[에너지]
- WSJ: 태양광 붐 더욱 더 확산되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 Business: 미국 쇼핑몰 죽지 않았다
- WSJ: 고용주들, 저임금 근로자에 출산 혜택 제공↑
- CNBC: 3가지 트렌드, 레스토랑 기업 승자와 패자로 나누다
- Bloomberg: 샘스 클럽, 코스트코에 대항해 판매 전략 구사
- WSJ: IKEA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입점하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Why the Era of Historically Low Interest Rates Could Be Over
저금리 시대 막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 연준이 22년만에 금리를 최고 수준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고, 올해 3분기 성장률이 2% 추세를 쉽게 넘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설사 향후 수년간 금리가 목표치 2%로 내려간다고 해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아질지는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의문시 하고 있다.

- 문제는 중립 이자율인데 이는 저축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되는 금리다.

- 경제 활동이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중립 금리는 향후 수개월간 중요해질 수있다. 중립 금리 상승시에 단기 금리가 더 높아지거나 또는 인플레 하락으로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 또한 모기지와 회사채 금리를 결정하는 장기 채권 수익률이 더 오래 오른 상태가 될 수 있다.

WSJ 기사

Bloomberg: Fed Can't Celebrate Yet as Investors Expect Rates, Inflation to Remain Elevated
연준 아직 자축하기엔 이르다… 금리와 인플레 계속 상승

- 블룸버그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02명중에 3분의 2가 여전히 연준이 인플레를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 파월 연준 의장 등이 인플레를 통제할 정도로 충분히 금리를 올렸는데 확실할 수 없다. 금융시장 입장에서 점차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긴축 정책 유지 기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설문 응답자의 80% 이상은 파월의장이 잭슨 홀에서 행한 연설은 매파적인 입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 인플레 비상 상황은 완화되고 연착륙이 가능해 보이지만 아직 장기간의 금리 상승은 주식과 채권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Banks Don't Love Rich Mortgage Borrowers as Much as They Used To
은행들, "부유한 모기지 대출자들 이젠 별로"

-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부유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거액 주택 대출에 제동을 걸고 있다. 작년에 연준의 높은 금리 인상과 잇따른 은행 부실 때문에 부유한 주택 구매자들은 더 이상 특별 우대와 우대 금리를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있다.
- 특히 일반적으로 72만6천2백불을 넘는 이른바 '점보' 대출자의 이자율은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점보 대출은 일반적으로 일반 모기지 보다 낮은 이자율이지만, 최근 수개월 동안 이자율이 역전되었다. 최근 점보 금리는 7.44%, 일반 소형 대출의 금리는 7.20%다.

WSJ 기사

[뉴욕시]

WSJ: NYC Congestion Pricing Board Tackles Tough Job of Deciding Who'll Be Exempt
뉴욕시 교통 혼잡세 기관, 통행료 면제 대상 놓고 골머리

- 뉴욕시 60스트릿 아래로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세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이 내년 2분기에 시작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위원회는 저소득 거주자나 뉴저지 통근자 등 어떤 그룹이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 관계자인 전 뉴욕시 도시 계획국장 Carl Weisbrod는 “면제 특혜가 적을 수록 모든 사람들에 적용되는 통행료가 올라가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프로그램으로 E-Z 패스 이용자는 피크 시간에 23불, 그렇지 않은 시간대는 17불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운송/자동차]

CNBC: Major shipping routes are struggling with water shortages. El Niño could make it worse
주요 해운 항로 어려움 겪어… 물부족 현상 탓

-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이 늘어 세계 주요 항로가 타격을 입고 있는데 엘니뇨 현상이 시작되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파나마 운하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여기를 지나는 선박의 숫자를 줄이기로 했다. 해운 대기업 Maersk는 파나마 운하의 운항 지역에 별 영향을 받고 있지 많은다면서도 기후 위험 확산으로 잠지적을 심각한 여파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한편 엘니뇨 현상으로 내년에 지구의 주요기후 임계치인 섭씨 1.5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CNBC 기사

WSJ: Car Prices Might Be Unsustainable for Buyers
자동차 구매 대출 더 부담될 수 있어

- 높은 이자율로 자동차 구매자들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관련 회사 Cox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새 차량이 월 페이먼트가 7백50불이 넘고 이자율은 9.5%다.

- 중고차의경우 평균 이자을은 13.7%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발급된 대출의 평균 기간은 거의 6년이다.

- 일반적을 실업률이 오르면 채무 불이행이 오르는데, 최근에는 실업률이낮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차량 구매 융자 채무불이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 더우기 자동차 회사들은 가격을 계속 인상하고 있다.

WSJ 기사

[에너지]

WSJ: Solar Boom Spreads to Timberlands and Self-Storage Rooftops
태양광 붐 더욱 더 확산되다

- 미국 Self-Storage, 남부 송림지대(pinelands), 아울렛몰 등 특이한 장소에서도 태양광이 설치되고 있다.
- 작년 재생 에너지 세금 감면 혜택을 강화한 기후 법안이 통과된 이후 태양광 설치가 급증했다. 1년동안 미국 기업들이 태양광 설치,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1천억 불 이상의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한 것.
- 에너지 정보 관리청(EI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태양광 설비가 모든 신규 발전 용량의 35%를 차지했다. 또한 올해 25.2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용량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500만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
- 태양광 발전이 급증하면서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 전기세가 하락했다. 텍사스의 기록적인 태양광 생산량은 천연가스 발전소를 오프라인 상태로 유지하고, 지역 연료 가격을 전국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N Business: The US mall is not dying
미국 쇼핑몰 죽지 않았다

- 미국 쇼핑몰은 죽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다.
- Coresight 리서치에 따르면 많은 쇼핑몰이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점유율과 더 많은 고객을 유치했다.
- 2022년 상위 계층 쇼핑몰의 유동인구는 2019년 대비 12%, 하위 계층 쇼핑몰의 유동인구는 10% 증가했다. 최상위 계층 쇼핑몰은 '일반 쇼핑객의 연 소득이 20만불 이상인 부유 지역에 위치한' 쇼핑몰로 정의되었다.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상위 계층 쇼핑몰은 연간 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총 매출은 75억 불, 하위 계층 쇼핑몰 매출은 64억 불로 다소 뒤처졌지만, 성장률은 9%에 달했다.
- 지난해 상위 계층 쇼핑몰의 평균 임대율은 95% 이상, 하위 계층 쇼핑몰은 약 89%였다. Brookfield, Macerich, Simon Property Group 등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최근 몇 분기 동안 리테일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말했다.

- “방문 빈도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센터에서 입주 대기자 명단을 받고 있다”고 미국에서 130개 이상의 쇼핑 센터를 관리하는 Brookfield Properties의 임대 담당 이사인 Kirsten Lee가 말했다.

CNN Business 기사

WSJ: Hourly Jobs With Fertility Benefits Offer Some Workers a Path to Parenthood
고용주들, 저임금 근로자에 출산 혜택 제공↑

-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주가 급증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고액 연봉을 받는 기술 직원 유치를 위해 시작 되었지만, 이제는 계산원, 창고 직원 등 저임금, 파트타임 직원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 37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관리자인 Courtney Lorenz은 불임 치료가 필요하단 사실을 알게 되자 부업을 시작했다. 돈 때문이 아닌 복지 혜택 때문.

- 그녀는 6개월 동안 주 10시간, 시간당 16불을 받고 Tractor Supply에서 계산원으로 일했다. 덕분에 기본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자 채취 시술에 대한 보험금을 4번 지급 받았다.

WSJ 기사

CNBC: 3 trends are dividing restaurant companies into winners and losers
3가지 트렌드, 레스토랑 기업 승자와 패자로 나누다

- 방문 빈도: 고객 지출 금액과 레스토랑 방문 빈도, 이 두 가지 지표는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 외식업체들이 계속해서 가격을 인상하면서, 레스토랑 방문 빈도가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

- 높은 방문 빈도를 보고한 맥도날드와 치폴레 등은 최근 분기에 매출이 성장했고, 방문 빈도가 감소했다고 밝힌 버거킹, 웬디스 등은 최근 분기에 매출 성장이 둔화 되었다.

- 가치 인식: 대체로 패스트푸드 업계는 소비자들에게 편한 분위기와 저렴한 음식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혜택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인식은 업체마다 다르다.

- 예를 들어, 맥도날드는 연소득 10만 불 미만, 4만 5천 불 미만의 소비자들에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에 같은 패스트푸드 업체인 웬디스에서 연소득이 7만 5천 불 미만인 고객들은 소비를 줄였다.

- 혜택 제공: 고객이 가성비를 중시하면서 할인 및 콤보 식사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었다. 기간 한정 메뉴도 일부 레스토랑 매출에 도움이 되었다.

- 예시로 맥도날드는 ‘Grimace Birthday Meal’ 콤보를 제공했고, 소셜 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타 고객의 방문 빈도를 늘렸다. 이는 기간 한정으로

Grimace 밀크셰이크와 맥너겟 10조각 혹은 빅맥과 같은 핵심 메뉴를 제공한 것.

CNBC 기사

Bloomberg: Sam's Club's War Against Costco Started With $1.38 Hot Dog Combo
샘스 클럽, 코스트코에 대항해 판매 전략 구사

- 작년 11월 Sam's Club은 핫도그와 탄산음료 콤보를 1.38불이라는 가격에 내놓았다. 이는 경쟁사인 Costco의 1.50불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은 것.
- 그 후 몇 달 동안 이 콤보 메뉴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가격 인하로 경쟁사 코스트코를 능가하는 거래량을 기록한 것.
- 이 기업은 이제 더 많은 상위 계층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품 구색을 간소화하고 고품질 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 이는 경쟁사인 코스트코와 닮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WSJ: Retailers Are Fleeing Downtown San Francisco. IKEA Is Moving In.
IKEA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입점하다

- 다른 소매업체들이 샌프란시스코 도심을 떠나는 상황에서, 이케아는 입점할 예정이다.
- 다른 소매업체들이 샌프란시스코 도심을 떠나는 이유는 범죄, 노숙, 마약 남용이 등으로 고객들의 방문 빈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 "우리는 이 위치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지역에 진출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해 더 많은 상업 활동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샌프란시스코 새 매장의 매니저인 Arda Akalin이 말했다.
- 이케아의 글로벌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는 베스트셀러 제품을 재설계해 비용을 절감한 가격 인하 전략 덕분이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역사적 저금리시대 끝나나…2020년 이전 복귀 어려울 듯"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미국 경제가 놀라운 활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연준 목표치 2%를 달성해도 금리가

2020년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20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경제활동이 여전히 견조해 저축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이자율인 '중립금리'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다.

통상 차입과 지출이 강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면 중립금리는 현재 금리보다 높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중립금리가 현재 금리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